<쓰레기덕후>

‘쓰레기덕후의 가상마을-쓰레기덕질’

1. 쓰레기 덕후, 덕질은 참 안 어울리는 단어의 조합 같습니다. 왜 이런 이름을 붙였나요? 어떤 모임인가요?
쓰레기덕질 커뮤니티는 쓰레기 문제에 관심 있고,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인데요. 처음에 자기 일상의 쓰레기를 관찰해서 일지를 써서 올리는 활동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 하다보면 쓰레기를 덕후처럼 수집하고 분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린 쓰레기덕후들이구나, 란 이야기를 나눴었구요. 자연스럽게 커뮤니티 이름은 쓰레기덕질이라고 붙이게 되었어요, ‘빠띠’라고 하는 커뮤니티 플랫폼에서 만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2. 여기서는 쓰레기를 부르는 다른 명칭이 있다면서요? ‘쓸애기’?
네, 커뮤니티에서 ‘클라블라우’님이라는 디자이너가 계신데, 이 분은 쓰레기를 업사이클링해서 선물이나 기념품 같은 걸 만드는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그 분한이 쓰레기를 쓸애기라고 부르셨는데, 쓰레기를 다르게 보게 해주는 재밌는 이름 같아요.

3. 4개의 커뮤니티로 활동하고 있던데, 각각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쓰레기덕질은 일종의 ‘**가상 마을**’이에요. 다른 말로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빠띠”라고 하는 자기의 활동 공간을 **누구나** 추가할 수 있어요.
1) 현재는 일주일 동안 자신의 쓰레기를 관찰하고 기록해서 일지를 올리는 “쓰레기 관찰기 활동”,
2) 제로웨이스트를 하는 팁들을 모으는 활동,
3) “쓸애기를 부탁해”라고 아까 말씀드리는 쓰레기를 업사이클링하는 활동,
4) 마지막으로 일회용컵 모니터링을 하고, 캠페인을 하는 “어쓰”라는 활동이 있습니다.

4. 언제부터 생겼고, 어떻게 생겨난 건가?
제로웨이스트’는 생활 속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은 재활용하자는 운동이고, 국내외에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있는데요. 쓰레기덕질은 작년에 생긴 한 프로젝트에서 출발했는데요. 처음에 한 직장에 다니던

동료 3명이 쓰레기 문제에 관심이 있었는데, 환경운동가는 아니지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쓰레기관찰 1달, 쓰레기없이 살기 1달을 도전하는 프로젝트를 2~3달 정도 하는 걸로 시작했어요. 그 세 분이 빠띠라는 커뮤니티 플랫폼에 활동을 오픈하고 참여자를 모집했구요. 제가 그래서 네 번째로 참여한 멤버였습니다. 지금은 쓰레기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다양한 분들이 모인 커뮤니티가 됐어요.

5. '일주일간 쓰레기 없이 살아가기' 프로젝트에 도전하면서 매일 자신들이 만들어 낸 쓰레기를 찍은 사진이나 그림을 공유한다고? 쓰레기를 관찰하는 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첫째)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한다고 하면, 곧바로 쓰레기를 하나도 없게 만들어야 할 것 같은 부담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쓰레기 없이 살기에 도전하라고 했다면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쓰레기 관찰은 쓰레기를 안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나오는 것을 사실적으로 보기만 하면 되니까 시작하는 부담이 덜 한 것 같구요. 또 여러 사람과 온라인으로 공유하고 댓글로 수다 나누니까, 외롭지 않고 그 자체가 재미있는 대화가 되더라구요.

둘째) 쓰레기를 하나 하나 주어서 모으고 기록하다보면, 차라리 쓰레기를 안 만들고 만들고 말지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구요. 평소엔 보면서 아무 생각 없었던 것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셋째) 부수적인 효과로는 제가 어떻게 사는지 생활습관이나 소비패턴을 볼 수 있더라구요. 어디서 무엇을 먹고, 사고, 쓰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인스턴트를 많이 먹고, 외식을 많이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6.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실천을 하다 보면 별난 사람 취급도 받았을 것 같은데요? 물수건 거절한다든가, 가방에서 대나무 빨대 빼서 쓰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여러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요즘은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이 아니라 다회용컵을 주는 카페는 많이 늘었는데, 조금만 신경쓰지 않으면 빨대를 그냥 꽂아서 서빙해주시는데, 빨대 안 주셔도 돼요, 라고 말하는 걸 잊어버릴 때 난감하고요.

떡볶이집에 떡복이 담을 락앤락을 들고갔는데, 일회용 그릇에 비닐껴서 거기에 담으신 다음에 락앤락에 담아주시려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아앗, 바로 담아주셔도 되는데"라고 했더니, 약간 화를 내시면서 "1인분 계량을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다음부턴 거기 안 가고 있어요.

7. 커뮤니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
비슷한 문제의식과 어설프지만 뭐라도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서로 발견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서로 지지와 격려도 주고 받고, 또 같이 하면 더 즐겁고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런 걸 제안할 수 있는 곳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년 반 정도 됐는데, 쓰레기 문제,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와 관련되어서 활동하는 분들은 느슨하게 다 연결된 것 같거든요.

8.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경험하면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가 생겼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이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기대되는 것. 우리가 어디까지 실천하고, 사회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되요.

9. 가장 충격적인? 혹은 기억에 남는 사진이 있는지? 씽 님은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땠나요?
쓰레기 관찰 사진 말씀이신가요?
저는 “먹는 쓰레기”라고 부르는데, 음식과 관련된 쓰레기가 대부분인 게 충격적이었어요. 커피, 과자, 음료, 식자재 포장지 등등 거의 대부분이 먹느라 생기더라구요. 먹는 쓰레기가 안 나오면, 그건 바빠서 외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건데. 쓰레기를 외주화하는 거라서 좋은 건지는 모르겠더라구요.

10. 우리도 모르고 하는 행동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무심코 하는 행동인데 그게 쓰레기를 만드는 행동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커뮤니티에서 많이 나오는 고민이 “택배”에요. 요즘 인터넷으로 물건을 많이 사는데, 한번 사면 너무 많은 쓰레기가 같이 오거든요. 내가 물건을 산건가, 쓰레기를 산건가 헷깔릴 지경.

11. 조금 더 쓰레기에 예민해져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팁 같은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희가 일상 속에서 실천하기 쉬운 것들이 있다면?
텀블러와 장바구니는 많이들 하시죠. 저는 ‘클라블라우’님한테 배운건데요. 비닐을 재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아무리 안 쓰려고 해도 집에 비닐이 들어오는데, 그걸 잘 접어서 가방에 넣고 다니는 거에요. 그러다가 과일이나 채소를 사거나, 깨끗한 건 빵이나 먹다남은 간식도 싸올 수 있고, 우산 비닐로도 쓸

수 있죠. 가볍고 부피를 별로 안 차지해서 가방에 2-3개씩 넣고 다니면 좋은 것 같아요.

12. 제로 웨이스트를 위한 물건들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나? 자기만의 제로 웨이스트 아이템이 있을 것도 같은데?
저는 찬 음료 마시는 걸 좋아해서 스테인레스 빨대나 유리 빨대를 좋아하구요. 천으로 된 주머니는 장을 볼 때 써요. 실리콘 주머니가 해외에서 나왔는데, 그걸 사고 싶어서 좀 알아보고 있어요.

(작가님 주: '쓰레기덕질' 모임에서 하고 있는 활동 중 하나가 재활용이다. 쓰레기를 새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불필요한 물건을 받아 작품 재료로 활용한다. 양파망을 이어붙여 가방을 만들기도)

13. 환경부가 8월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머그컵 사용 여부를 묻지 않는 매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우선 너무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오랫동안 이 문제를 고민했었거든요. 그런 저희같은 사람 입장에선 너무 놀랄만한 변화에요. 이렇게도 세상이 바뀌는구나 싶었어요. 다만 아쉬운 점은 많아요. 저희 커뮤니티와 또 다른 활동가들이 함께 커피전문점이랑 패스트푸드 매장 28개 업체, 84개 매장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기대한다면 플라스틱 일회용컵의 로고를 지운 투명한 제품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로고가 그려져 있으면 그걸 약품을 지워야만 재활용이 된다고 하거든요. 몇몇 업체들은 빨대, 컵홀더, 비닐 등에 대해서도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나머지 업체들도 모든 일회용 플라스티 제품에 대해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14. 8월1일부터 일회용컵 단속에 나서고 빨대 사용도 규제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미 일회용 비닐이나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자영업 회원들도 있나요?
저희 커뮤니티와 인연이 있는 곳 중엔 연희동에 "보틀팩토리"라는 카페가 있어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카페에요. 여기 대표님들은 몇 년 전부터 테이크아웃 컵을 대신해서 대여해줄 수 있는 텀블러를 개발하고 계세요. 제가 알기론 조만간 사용을 시작할 것 같은데요. 보증금을 내고 텀블러를 빌려준다음 반납하면 다시 보증금을 돌려드리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에요.

15. 레스토랑의 경우는 일회용품을 완전 배제하긴 힘들 것 같다. 테이크아웃을 원하는 손님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테이크아웃 용기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제품들이 보편화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작가님 주: 옥수수전분으로 만든 일회용컵, 대나무펄프로 만든 포장용기 등 자연에서 생분해되는 포장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타협'을 봤다.)

근데, 다른 나라들 중에는 몇 년 안에 일회용플라스틱 제품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사실 한국에서 이렇게 일회용품 많이 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문제에 대해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고, 공급자들도 환경을 위한 변화에 적극 나서면 해결될 것 같아요.

16. 그러면 돈이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작가님 주: 일반 플라스틱보다 단가가 5배 이상 비싸고, 원하는 때에 원하는 양을 구매하는 게 쉽지 않다고.)

일회용품을 거절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엔 환경부담금을 부가하면 어떨까요. 용기 값을 받는 거죠. 재사용 용기에 담아주고, 그 용기 값을 포함해서 받는 것도 괜찮구요.

17. 사실 혼자만의 실천이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지 않나?

유통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꾼다든지, 정책적 측면에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어떤 식의?

네, 쓰레기덕질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장을 봐서 오면 집에 쓰레기가 엄청 들어오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왜 나한테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게 하지?" 나한테 쓰레기를 버린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공급, 유통 단계에서 많이 바뀌고 대안적인 실험들이 늘었으면 좋겠구요.

쓰레기덕질에서도 그래서 '어쓰'라는 프로젝트 모임이 하나 만들어져서, 기업과 환경부에 요구하는 서명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어요. 28개 기업에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줄이는 대책을 밝혀달라는 요구를 했고요. 저희가 1차 목표로 한 1천명 넘게 서명을 했고, 9개 기업이 답변을 밝혔습니다. 서명하신 분들의 의견과 메시지를 모아서 환경부장관에 전달할 예정이에요. 쓰레기덕질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까지 하게 된 게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18. 한 번에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것들, 권하고 싶은 것들은?

플라스틱이랑 비닐만 1주일간 관찰해보기. 쓰레기 관찰기 빠띠에서 매 달 1주일씩만 쓰레기 관찰을 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기간이 길면 힘드니까, 매달 1주일만 하는 거에요. 그걸 하시면 스스로 실천할 만한 것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9. 앞으로의 목표, 계획은 무엇인가요?

쓰레기덕질 커뮤니티에서 정기적인 모임이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좀 정리해보고 싶구요.

캠페인팀인 “어쓰”에서 일회용컵 다음 대상을 정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캠페인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빨대나 비닐을 목표로 해볼까 싶어요.

일상에서 실천할 거리를 같이 하고, 또 사회적인 행동도 같이 만드는 커뮤니티를 해보고 싶어요.